

Sports

신지애 “이번엔 청아니 잡는다”

LPGA 개막전 호주오픈…스탠퍼드와 동반 플레이

신지애(24·미래에셋)가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호주여자오픈 대회 1, 2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상금랭킹 7위인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맞붙는다.

대회조직위원회가 8일(이하 한국 시간) 발표한 조편성에 따르면 신지애는 9일 오전 10시30분 티오프해 스탠퍼드, 호주의 린제이 라이트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신지애는 프로 데뷔 후 지난해 처음으로 우승 없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미국 팜스프링에서 동계훈련을 마

친 신지애는 지난 1일 호주로 건너가 샷 감각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승 후보 중 명인 청아니(대만)는 오전 7시 호주의 골프 스타인 카리웹, 모건 프레셀(미국)과 경기를 시작한다.

LPGA 무대에 본격 데뷔하는 유소연(22·한화)은 세계 2위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같은 조가 됐다.

개막전에 초대받은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관왕인 김하늘(24·비씨카드)은 캐롤린 해드웰(스웨덴) 등과 동반 플레이를 한다.

프로 골프 세계 최연소 챔피언 자리를 꾸준 리디아 고(14·한국명 고보

경)는 크리스탈 부엘리옹(네덜란드)·브리타니 린시킴(미국)과, LPGA 유망주인 알렉시스 톰슨은 스

테이시 루이스·크리스티 커(이상 미국)와 1, 2라운드를 치른다.

◆호주여자오픈 1라운드 주요 선수 조편성(한국시간 9일 오전)

▲신지애-안젤라 스탠퍼드-린제이 라이트(10시30분) ▲리디아 고-크리스탈 부엘리옹-브리타니 린시킴(10시40분) ▲유소연-수잔 페테르센-캐서린 월(10시50분) ▲김하늘-캐롤린 해드웰-케이티 허처(11시10분·이상 1번 흘 출발) ▲알렉시스 톰슨-스테이시 루이스·크리스티 커(6시50분) ▲청아니-카리 웹-모건 프레셀(7시·이상 10번 흘 출발)

/연합뉴스



‘21세기 최고 수문장’

이운재 랭킹 41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가 2012 피스컵 국제축구대회(7월19~22일·수원)에 참가한다.

피스컵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8일 “올해 피스컵에 함부르크가 참가하기로 확정됐다”며 “독일 현지에서 학교를 끝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구단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7월16~25일 예정된 프리시즌 경기의 일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단은 또 한국 방문 기간에 팀의 공격수인 손흥민(20)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춘천FC유소년 클럽과의 업무협약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또 지난원(21)이 뛰는 선덜랜드의 대회 참가도 확정적이다.

피스컵 관계자는 “이번 달 22일 수

원에서 선덜랜드 구단주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와 대회 개최에 대한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팀에서 백업 스트라이커 경쟁을 펼쳤던 손흥민과 지동원은 국내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2003년 처음 시작돼 격년제로 치러지는 피스컵은 그동안 에이트호번(네덜란드), 토토넘(잉글랜드), 울랭피크 리옹(프랑스), 애스턴 빌라(잉글랜드) 등이 우승컵을 차지했다.

올해 피스컵에는 총 4개 팀이 출전해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한국을 대표해 성남 일화가 나선다. 현재 함부르크와 선덜랜드의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셀틱(스코틀랜드), 불란(잉글랜드) 등이 출전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FFHS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축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해 골키퍼들의 순위를 매겼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베테랑 이운재(39·전남 드래곤즈)가 금세기 최고의 골키퍼 반열에 포함됐다.

이운재는 8일 국제축구연맹(IFIHS)이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골키퍼’ 순위에서 평점 13을 받아 공동 41위에 올랐다. 80명 가운데 아시아 선수는 이운재가 유일하다.

잔류이지 부폰(유벤투스)이 199점을 얻어 최고 골키퍼로 평가됐고 이게르 카시야스(197점·레알 마드리드)가 2점 차로 2위를 차지했다.

페트트 헤치(154점·첼시), 에드温 판 대르사르(116점), 윌리아 카나(99점·이상 익스) 등이 뒤를 따랐다.

IFFHS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축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해 골키퍼들의 순위를 매겼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 스파이크”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기술 이름은 ‘YANG Hak Seon’

채점 규칙 공식 등재

기술이 FIG 규칙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

그러나 국내 체조인들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독보적인 기술로 평가받는 ‘여 1’, ‘여 2’에 이은 양학선의 이번 기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

여 2는 1996년 애들랜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따라 양학선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술로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신기술에 새 연기를 선보인 선수의 이름을 붙인다’는 FIG 규정에 따라 양학선의 신기술은 ‘YANG 1’이 아닌 영자이름 ‘YANG Hak Seon’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함부르크·선덜랜드 7월 피스컵 출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가 2012 피스컵 국제축구대회(7월19~22일·수원)에 참가한다.

피스컵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8일

“올해 피스컵에 함부르크가 참가하기로 확정됐다”며 “독일 현지에서 학교를 끝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구단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7월16~25일 예정된 프리시즌 경기의 일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단은 또 한국 방문 기간에 팀의 공격수인 손흥민(20)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춘천FC유소년 클럽과의 업무협약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또 지난원(21)이 뛰는 선덜랜드의 대회 참가도 확정적이다.

피스컵 관계자는 “이번 달 22일 수

원에서 선덜랜드 구단주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와 대회 개최에 대한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표팀에서 백업 스트라이커 경쟁을 펼쳤던 손흥민과 지동원은 국내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2003년 처음 시작돼 격년제로 치러지는 피스컵은 그동안 에이트호번(네덜란드), 토토넘(잉글랜드), 울랭피크 리옹(프랑스), 애스턴 빌라(잉글랜드) 등이 우승컵을 차지했다.

올해 피스컵에는 총 4개 팀이 출전해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한국을 대표해 성남 일화가 나선다. 현재 함부르크와 선덜랜드의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셀틱(스코틀랜드), 불란(잉글랜드) 등이 우승컵을 차지했다.

FFHS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축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해 골키퍼들의 순위를 매겼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 스파이크”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NH 농협 2011-2012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도로공사 이바나(나비)가 현대건설 김주하, 양효진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